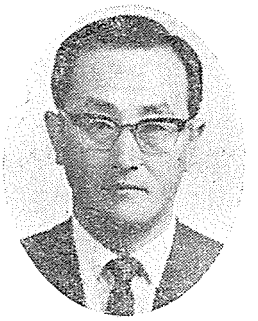
<地學部門>

진정한 學生作品이 要望돼



金　鳳　均　教授
서울大學校文理科大學

금년의 과학전람회는 벌써 20회를 거듭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성년기에 들어선 과전이기에 어떤 뚜렷한 개성을 지녀야겠다는데서 금년에는 과학교재부문에 중점을 두기로 주최자측의 태도가 정하여졌다. 지학분야의 평을 하기에 앞서서 전반을 돌아본 소감을 한마디로 평한다면 양보다 질이 앞섰다고 말 할수 있겠다. 이와같은 소감은 본인뿐만 아니라 전심사위원들이 모두들 한결같이 느낀소감이기도 하다

금년도 지학분야 출품수는 작년도의 15점에 비하여 한점이 모자라는 14점이었다. 출품작을 분석하여 본다면 크게는 과학교재부문에 8점이 출품되었고 기초과학부문에 6점이 심사대상에 올랐다. 이들을 지학의 천문기상, 지질 및 해양분야별로 나누어 본다면 전자가 5점 중자가 7점이였고 나머지 2점이 해양분야에 속한다. 중등교사작품이 7점 초등교사작품이 3점 고등학생작품이 3점 초등학생작품이 한점이였으니 단연 교사 작품수가 우세 하였다. 출품도별로 따져본다면 서울, 경북, 충남, 전북, 경기가 각각한 점씩, 부산, 강원도와 충북이 각각 2점, 전남이 3점등이였으며 전남이 양과 질에 있어서 가장우수하였다. 따라서 지학분야에서 금년도 최우수작품은 전남의 초등교사인 이형기와 이제훈 두선생이 만든 창선도 앞 해저에서 발견되는 계의화석화 과정에 관한 고찰 이였으며 이에 대하여 특상인 국무총리상이 주어졌다. 이 작품의 내용을 간추려본다면 창선도 앞의 수심이 약10m정도의 해저에서 현재 이루워어지고 있는 화석화작용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해저퇴적물을 정확한 채집 방법으로 채집하였고, 현 퇴물적중에서 만들어지는 노듈과 그의 생성과정 및 이의 화석화와의 관계들을 과학적인 증거를 제시설명하였다. 또한 화석화과정에 있는 게와 조개의 연구를 위하여 이와 같은 현생생물(게와 조개)들을 다수 채집하였으며 특히 화석화도중에 있는 게는 현재는 조간대에 서만 서식하는 것이며 현재 화석화가 이루워지고 있는 수심10여m 해저와 같은 곳에서 살 수 없음을 밝혔고 이로서 이 지역의 지각운동인 침강현상을 밝혔음은 훌륭하고도 정확한 지학적 고찰에 의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각급학교의 지학교사들이 한결같이 다루기 힘든 화석화작용의 문제를 거이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해석해낸 것으로 생각된다.

"전향력 이해관계 실험기구 및 태풍의눈 간이모형"이란 작품을 낸 충북 괴산고교의 윤선진선생은 전향력을 설명하기 위하여 각종기기를 고안하였을뿐만 아니라 그 기기를 사용하여 얻은 실험치로서 전향력을 설명하는 공식을 얻는데 성공한 우수작품이 였다.

이와 같이 지학 14점작품은 모두 우수하였으며 한점의 낙선작도 금년에는 없었다. 끝으로 지학분야의 더 많은 좋은 작품이 쏟아져 나오길 바라면서 진정한 의미의 학생작품이 더 많이 출품되기를 바라면서 금년도 과전의 지학분야의 심사평에 대할까 한다.